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장은서** · 최연실***

<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2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 자기수용, 불안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과 AMOS 19.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는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는 자기수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초등학생의 자기수용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넷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은 완전 매개 효과를 갖는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사회불안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해 부모 측면과 자녀 측면에서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핵심 단어: 완벽주의, 사회불안, 자기수용, 매개효과.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를 토대로 한 것임.

This article wa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석사.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yschoi@smu.ac.kr).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I. 서론

사람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사회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을 ‘사회불안(social anxiety)’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불안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사회적 상황 또는 수행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하는 것’(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기은, 2008, 재인용)이라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회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끊임없이 마주치게 되는 사회적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에 관계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생활하는 학교, 직장동료나 상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 등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회불안이 높으면, 아동은 또래관계와 학업을 포함한 학교생활 적응을 어려워하고(민영숙, 박원모, 천성문, 이영순, 2007; 박영희, 2005; 송영희, 2006; 오언, 방명애, 2012), 대학생은 학업에 지장을 받는 등(허재홍, 조용래, 2005) 발달적 차원에서 만나게 되는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아동은 친구와의 사회적 유대를 확립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발달과업으로 갖고 있고 이를 학교에서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내기 때문에(정옥분, 2002),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사회불안이 높으면 발달과업을 제대로 성취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또래와의 유대 관계의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인 상황을 여전히 곤욕스러워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불안은 초기 청소년기 발달과업의 성취를 방해하고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사회불안을 겪고 있고 또 무엇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를 살펴서 사회불안의 예방에 힘쓸 필요가 있다.

어머니는 자녀와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존재이자 양육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이며, 사회불안 역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가 높을수록, 자녀를 방임 할수록, 자녀에 대한 돌봄과 과보호가 많을수록 자녀의 사회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무경, 오윤희, 오강섭, 2005; 김혜민, 2008; 송영희, 2006). 이는 사회불안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 본인의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사라형선, 2005). 어머니 본인의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녀의 우울과 불안이 높아졌고, 어머니 본인이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였으며,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김재룡, 2009). 이는 어머니의 완벽주의적인 태도가 자녀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완벽주의 성향과 같은 어머니 본인의 속성이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녀의 사회불안을 유발시키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완벽주의는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바라는 기대와 성향으로서 이는 어떤 개인의 행동방식에서 드러나게 된다(Slaney & Ashby, 1996).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자녀가 그 기준을 달성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자녀가 기준 정도와 상관없이 늘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녀는 어머니의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 심리적인 부담은 기준을 제시하는 어머니 쪽보다는 기준을 달성해야 하는 자녀 쪽에서 더 잘 느끼게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본인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아닌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로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과잉 간섭을 한다고 자녀가 지각할 때 사회불안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송영희, 2006)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의 역기능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녀가 모두 정서적 문제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불안 사이에서 개별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불안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들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수치심, 사회적 유능감 등이 연구되었다(김혜민, 2008; 김혜진, 2006; 홍영근, 문지혜, 왕가년, 조현춘, 2008).

한편, 자기수용은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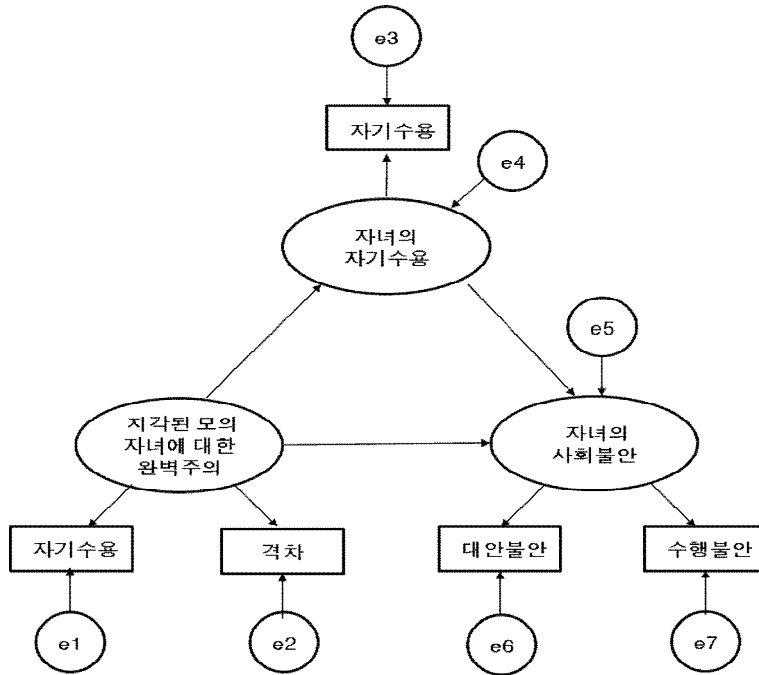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모형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검증되어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변인임이 확인된 바 있다(이기은, 2008). 자기수용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Maccines, 2006)’으로,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단점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 상황에서도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에 따르면,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여 사회불안을 덜 느낄 것이므로, 이러한 자기수용의 효과를 감안해 볼 때, 초등학교 자녀에 미치는 어머니의 완벽주의에 있어서도 자녀의 자기수용은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수용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등과 같이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활발히 연구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와 자녀의 사회불안의 관계를 검토하고 여기에 미치는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자녀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이 어떤 경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와 자기수용의 두 변인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여 사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회불안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1>과 같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기수용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초등학생의 자기수용이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기수용을 통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표 2-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82)

변 수		n(%)	변 수		n(%)	
어머니 연령	35~39세	64(22.7)	자녀 성별	남자	136(48.2)	
	40~44세	166(58.9)		여자	146(51.8)	
	45~49세	47(16.7)	자녀 학년	5학년	143(50.7)	
	50~55세	5(1.7)		6학년	139(49.3)	
어머니 종교	기독교	84(29.8)		자녀 출생 순위	외동	54(19.1)
	천주교	43(15.2)			첫째	85(30.1)
	불교	36(12.8)	중간		14(5.0)	
	기타	10(3.5)	막내		129(45.7)	
어머니 학력	종교 없음	106(37.6)	자녀수	1명	54(19.1)	
	중학교 졸업 이하	15(5.3)		2명	197(69.9)	
	고등학교 졸업	82(29.0)		3명	28(9.9)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	156(55.3)		4명	3(1.1)	
어머니 직업	대학원 졸업 이상	30(10.6)	가족 형태	확대가족	54(19.1)	
	가정주부	120(42.6)		핵가족	217(77.0)	
	사무직	41(14.5)		한부모가족	11(3.9)	
	서비스직	24(8.5)				
	생산직	14(5.0)				
	전문직	43(15.2)				
자영업	21(7.4)					
기타	17(6.0)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이다. 이는 사회불안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만 10세부터인 것(오경자, 양윤란, 2003)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

본 연구의 완벽주의 척도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수연(2005)이 사용한 Slaney와 Ashby(1996)의 완벽성향 척도(Almost Perfectionism Scales-Revised) APS-R의 한국어 번안판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19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높은 기준 요인 7문항, 격차 요인 12문항 등 총 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기준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개인적으로 높게 설정해 놓은 기준에 대해 자녀가 지각한 것이고, 격차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높은 기준과 지각된 자신의 실제 성취간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높은 기준 요인은 “엄마는 내게 거는 기대치가 높다.”, 격차 요인은 “나는 엄마의 높은 기준을 거의 못 맞추고 산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방식으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 .90, 높은 기준 .77, 격차 .91이었다.

2) 자기수용

본 연구의 자기수용 척도는 Phillips(1951: 손인환, 1987, 재인용)가 개발하고 손인환(198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타당화 과정에서 5문항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20문항이 활용되었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후에 나는 나 자신을 잘못했다고 비난한다’ 등의 문항이다. 각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항상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방식으로 역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3) 사회불안

본 연구의 사회불안 척도는 초등학생의 대인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양윤란, 양재원, 오경자(2008)의 한국판 청소년사회불안척도(Korean Version of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K-SAS-A)를 사용하였고, 수행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오경자와 문혜신(2002)이 제작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에 포함된 수행불안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인불안 질문지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타당화 과정에서 1문항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7문항이 활용되었다. 수행불안 질문지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타당화 과정에서 1문항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8문항이 활용되었다. 대인불안 척도의 내용은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나는 잘 아는 사람들과 있어도 수줍음을 탄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항상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방식으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불안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수행불안 척도의 내용은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큰 소리로 책을 읽어야 할 때면 긴장한다.”, “나는 너무 겁이 나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잘못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항상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방식으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불안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 .95, 대인불안 .94, 수행불안 .93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3곳(강서구, 중구, 종로구)을 임의 표집 하였고, 각 학교별로 5학년 2개 반, 6학년 2개 반에 속해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연구자가 각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들에게 연구 목적과 실시 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명을 들은 각 학급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작성하도록 한 뒤에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2011년 5월 2일부터 2011년 5월 13일까지 총 360부를 배포하여 총 324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42부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82부의 질문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WIN 19.0과 AMOS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분석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SPSS에서 신뢰도 분석을 사용하여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전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기수용이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추정하는 1단계 접근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별도로 추정하는 2단계 접근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을 먼저 추정한 후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2단계 접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자료 간의 부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자료를 충분히 설명하는 지수 10개를 선택하였고, 매개효과의 검증은 Sobel 검증의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노형진, 2008)을 사용하여 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 자기수용, 사회불안의 전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 자기수용, 사회불안의 전반적 경향은 <표 3-1>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는 전체 평균이 2.64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높은 기준 요인평균은 3.31로 평균 수준보다 높았고, 격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차 요인 평균은 2.25로 평균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바라는 기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어머니의 높은 기준과 실제 자신의 격차는 평균보다 약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의 초등학생은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어머니의 기준에 맞춰 대체로 잘 성취해내고 있다고 지각하는 편이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자기수용은 전체 평균이 3.22로 평균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정도가 평균보다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사회불안은 전체 평균이 2.23으로 평균 수준보다 낮은 편이었고, 각 영역을 살펴보면 대인불안의 평균과 수행불안의 평균은 2.23으로 같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초등학생의 사회불안은 대인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과 수행상황에서 느끼는 불안 모두 평균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 자기수용, 사회불안의 전반적 경향 (N=282)

변수	하위영역	M(SD)	범위	가능범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	높은 기준	3.31(.76)	1.14~5	1~5
	격차	2.25(.83)	1~4.83	1~5
	전체	2.64(.70)	1.11~4.74	1~5
자녀의 자기수용		3.22(.70)	1.30~5	1~5
자녀의 사회불안	대인불안	2.23(.88)	1~4.71	1~5
	수행불안	2.23(1.07)	1~5	1~5
	전체	2.23(.70)	1~4.68	1~5

2.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은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수 간 관련성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분석에 앞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1. 높은 기준	1				
2. 격차	.46**	1			
3. 자기수용	-.31**	-.54**	1		
4. 대인불안	.26**	.43**	-.74**	1	
5. 수행불안	.13*	.38**	-.54**	.73**	1

* $p < .05$, ** $p < .01$.

종속변수인 사회불안과 독립변수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자기수용은 독립변수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하위요인도 같은 방향의 상관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각 변수와 그 변수의 하위요인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자기수용과 대인불안의 상관계수(-.74)와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의 상관계수(.73)가 다소 상관이 높아 다중공선성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5를 넘어설 경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분산팽창지수(VIF)가 10이상인지 확인해 봄으로써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수 6개 각각을 개별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산팽창지수(VIF)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격차를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대인불안’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은 분산팽창지수(VIF)가 10이하로 기준치보다 상당히 낮고, 상관계수의 절대값도 .85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이란 개별 측정모형들의 잠재 변수를 공분산으로 서로 연결시킨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잠재 변수를 공분산으로 연결시켰고 이 잠재변수들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수용 척도는 문항결합(item parcelling)방법(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을 통해 자기수용1, 자기수용2로 나누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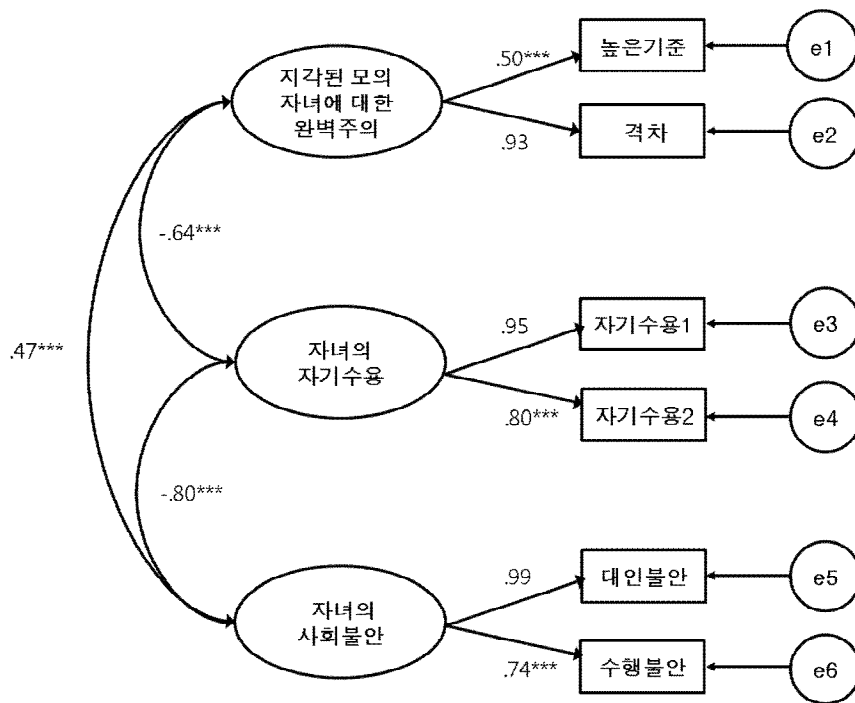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해 본 결과는 <그림 3-1>과 같고, <표 3-3>과 같이 주요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모형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경우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따로 살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확인요인분석의 결과가 신뢰도와 타당성 검사보다 우선한다(김대업, 2008).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3.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SRMR	RMSEA	GFI	AGFI	NFI	IFI	TLI	CFI
10.124	.017	.050	.988	.958	.989	.995	.988	.995



*** $p < .001$

그림 3-1. 측정모형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표준화된 요인적재값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준거변수를 제외한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표준화된 요인적재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준거변수는 비표준 회귀계수(λ)에 강제로 1이 할당되기 때문에 준거변수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는다(김대업, 2008). 본 연구에서는 준거변수로 선택된 측정변수에 대한 유의성도 확인하기 위하여 준거변수를 이미 유의성이 확인된 측정변수로 바꾸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처음에 준거변수로 사용된 측정변수 모두 표준화된 요인적재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잠재변수에 대한 모든 측정변수의 표준화된 요인적재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4. 연구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를 독립변수로, 자녀의 자기수용을 매개변수로, 자녀의 사회불안을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기수용 변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이 때 적합한 모형임이 가정되고 간접효과가 있으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며, 예측변인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오면 완전매개 효과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전체효과의 크기 비교 및 각 효과의 유의수준을 확인하였다.

다음에서 그 분석결과를 모형의 적합도 검증,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기수용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이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기수용을 통해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순으로 제시하였다.

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주요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표 3-4.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χ^2	SRMR	RMSEA	GFI	AGFI	NFI	IFI	TLI	CFI
7.880	.020	.076	.989	.945	.987	.992	.974	.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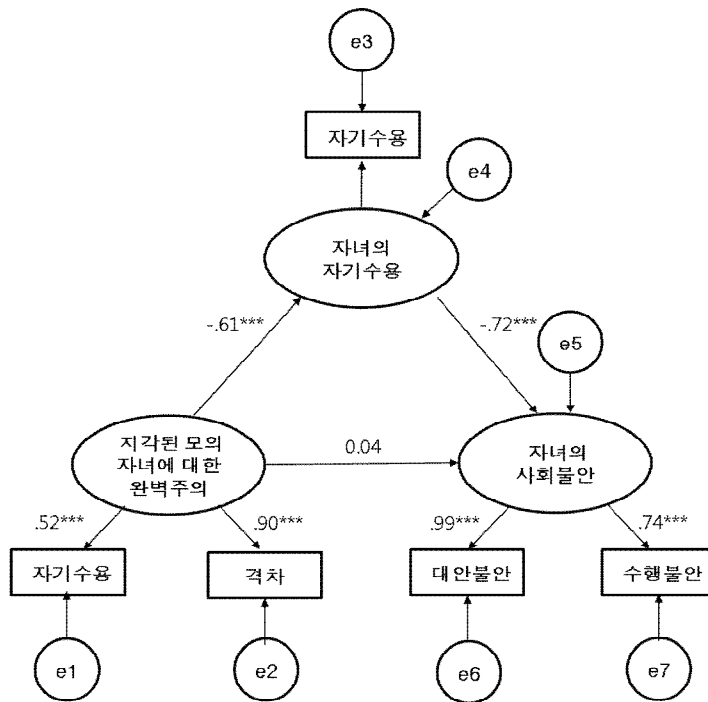
2)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3-5> 및 <그림 3-2>와 같다.

표 3-5. 연구모형 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 (S.E)	C.R.
초등학생이 지각한 모의 완벽주의 → 자녀의 자기수용	-1.09	-.61***	.15	-7.15
자기수용 → 사회불안	-.89	-.72***	.06	-13.52
초등학생이 지각한 모의 완벽주의 → 사회불안	.10	.04	.13	.74

*** $p < .001$.



*** $p < .001$

그림 3-2. 연구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경로계수는 비교를 위해 비표준화 경로계수들의 분산을 통일시킨 표준화 경로계수를 사용하였고, 경로계수의 유의성은 비표준화 회귀가중치 부분의 C.R.(Critical Ratio)로 판단하였다. 보통 경로계수로 제시되는 표준화 회귀계수는 그 절대값의 크기가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를 나타내고, .30은 중간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며, .50이상은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line, 1998; 임진호, 2007에서 재인용). C.R.은 그 절대값이 1.96보다 크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고, 2.58보다 크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다(김대업, 2008). 본 연구에서 유의한 모든 계수는 유의수준 1%내에서 유의하였다.

<표 3-5>에서 연구모형의 잠재변수 간 경로의 표준화계수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는 자기수용을 감소시키고, 자기수용은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의 그 절대값이 모두 .50이상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자기수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72)가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기수용에 미치는 효과(-.61)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도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녀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 경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beta = .04, p = .450$), 그 외 모든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본 연구모형이 적합하여야 하고 간접효과가 있어야 하는 매개효과의 가정을 충족시키면서 예측변인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와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불안은 .42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초등학생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경로계수 값은 .04이고 t 값(C.R.값을 의미한다)은 -.75($|t| < 1.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는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기수용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기수용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경로계수 값은 -.61이고 t 값은 -7.11($|t| > 2.58$)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기수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3) 자기수용이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이 본인의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경로계수 값은 $-.72$ 이고 t 값은 $-13.32(|t| > 2.58)$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수용이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본인의 사회불안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자기수용과 사회불안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이기은, 2008)를 통해 지지될 수 있다.

(4)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기수용을 통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기수용을 통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잠재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고, 원자료 표본($N=282$)에서 비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2,000개의 자료 표본을 모수 추정에 사용하였다. 신뢰구간의 비율은 95%에서 설정되었다.

표 3-6.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 → 자기수용	$-.61^{***}$	-	$-.61^{***}$
자기수용 → 사회불안	$-.72^{**}$	-	$-.72^{**}$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 → 사회불안	.04	$.43^{***}$	$.47^{***}$

** $p < .01$, *** $p < .001$.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결과는 <표 3-6>과 같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 .04, 간접효과 $.43(p < .001)$, 전체효과 $.47(p < .001)$ 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모형의 간접효과가 0이 아니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001수준에서 유의하며, 직접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는 사회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수용이 완전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는 자기수용을 통해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직접적으로 사회불안을 증가시키는지, 자기수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불안을 증가시키는지 살펴보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사회불안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 자기수용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위험요인보다는 보호요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전략의 개발이나 더 나아가 초기 청소년기의 사회불안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는 자녀의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초등학생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지기는 하나,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의 직접적인 영향이라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매개 혹은 중재하는 여러 변인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제시동기(김민선, 서영석, 2009), 사후반추사고(김희현, 2009), 자기비난(김선은, 2011), 사회적 지지(최은비, 2009) 등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른 변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도 매개변인으로 선정된 자기수용 외에 또 다른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시사된다.

둘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는 자녀의 자기수용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추구하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의 특성상 자기불일치가 높아질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자기수용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자녀의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기수용이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이유로는 부정적인 평가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 가치, 가치, 부정적인 상황까지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지각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의 영향이 높더라도 그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낮은 사회불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불안의 인지적 형태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이기은(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 이는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 자체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수용을 거쳐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기수용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자기수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은(2008)의 연구에서도 성인애착이 자기수용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자기수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지지하고 있다.

결국 자기수용이란 변수는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는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와 자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와 같이 두 가지의 접근 방향이 있지만, 긍정적 변수인 자기수용을 활용하여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부모 측면에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 본인의 완벽주의와 자녀의 정서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중재효과를 보고한 김사라형선(200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을 전반적으로 요약해 보면,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실제 수행이 어머니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자녀가 지각할수록, 자기수용은 낮아지고 낮은 자기수용은 다시 사회불안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자기수용의 직접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을 보이는 자녀에 대한 개입은 사회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동시에, 자기수용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표집으로 인한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 및 지역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사회불안의 평균발생연령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으로 후기 청소년과 성인들에게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 정도가 사회불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수용의 매개효과의 정도는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서울 지역의 표본을 많이 추출하였으므로 조사대상자의 대표성이 부족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좀 더 확장시키고 표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연령에 따라 사회불안의 정도와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 척도로 인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성향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지만, 이는 다차원적 속성을 가진 완벽주의의 여러 척도 중 한 척도를 선정하여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를 측정하도록 문항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척도와는 다른 속성을 측정하는 완벽주의 척도로도 같은 연구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본인이 지각한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아닌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기수용을 통해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실제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를 독립변인으로 연구했을 때는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작업에서는 어머니 본인이 지각한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녀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녀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 연구를 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업 및 교우관계 등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생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고, 자기수용이 사회불안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보다는 자기수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모와 자녀, 양 측면에서 제언점이 있다. 부모 측면에서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를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둔 부모교육 및 부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죄책감 및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어머니의 죄책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적절히 기대하고 자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도우면 충분히 사회불안을 낮출 수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측면에서는 아동의 자기수용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둔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가 사회불안 감소를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대업 (2008).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학현사.
- 김무경, 오윤희, 오강섭 (2005).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사회 불안 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599-614.
- 김민선, 서영석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계시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25-545.
- 김사라형선 (2005).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정서관계에서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증재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은 (2011). 남녀 고등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연 (2005).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상관 연구: 완벽성향 척도(APS-R)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룡 (2009).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자녀의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차이.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혜민 (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수치심 및 사회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진 (2006).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희현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사후반추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형진 (2008). Amos에 의한 공분산구조분석. 서울: 한울출판사.
- 민영숙, 박원모, 천성문, 이영순 (2007).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불안, 공격성 및 또래관계와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23(2), 115-140.
- 박영희 (2005). 아동의 사회불안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인환 (1987). 소집단학습이 학업성취도와 자아수용 및 타인수용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 송영희 (2006).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사회불안과 친구관계의 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윤란, 양재원, 오경자 (2008).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우울 증상간의 시간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35-50.
- 오경자, 문혜신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29-443.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 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57-576.
- 오연, 방명애 (2012). 사회불안장애 위험 청소년의 사회불안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28(2), 235-253.
- 이기은 (2008). 대학생의 성인애착,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진호 (2007). 초등학생의 e-러닝에서 인지된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모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옥분 (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최은비 (2009).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 지지가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재홍, 조용래 (2005). 자기 불일치와 사회불안이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5(2), 85-100.
- 홍영근, 문지혜, 왕가년, 조현춘 (2008). 신체상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4(4), 19-36.
- Maccines, D. L. (2006).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5), 483-489.
- Slaney, R. B., & Ashby, J. S. (1996). Perfectionists: Study of criterion group.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4), 393-398.

【논문 접수: 2013. 1. 31. / 수정본 접수: 2013. 3. 4. / 게재 승인: 2013. 3. 22.】

Abstract

**The Effects of the Mother's Perfectionism about Their Children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ocial Anxiety
: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Jang, Eun Seo · Choi, Youn Shi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data base for reducing and preventing social anxiety by examining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perfectionism about their children perceived by children and social anx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perfectionism about their children perceived by children does not affect social anxiety directly. Second, mothers' perfectionism about their children perceived by children affects self-acceptance directly. Third, self-acceptance affects social anxiety directly. Lastly, self-acceptance has complete mediating effects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perfectionism about their children perceived by children and social anxiety. This means that mothers' perfectionism about their children perceived by children itself does not affect social anxiety directly, but rather it affects social anxiety indirectly through self-acceptance.

Key Words: Perfectionism, Social Anxiety, Self-Acceptance, Mediating Effect.